中国, 북한에 開放권유

金日成-江澤民 어제 北京서 1차회담

"세계변화 적응해야" 江澤民

經濟특구 방문계획 金日成

【홍콩=金泳秀기자】中国을 공식방문중인 北韓의 金日成은 4일 江澤民중국공산당총서기와 1차회담을 갖고 한반도 통일문제와 국제정세、양국간의 우호 강화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江총서기는 김일성에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북한의 개방을 권유해 주목을 끌었다。

중국관영 新華통신은 중국외교부대변인의 말을 인용、양국정상이 이날 北京의 국빈숙소인 釣魚臺에서 오후 4시30분(한국시간)부터 2시간동안 회담을가졌다고 전하면서 이자리에서 김일성은 『한민족、한국가、두체제、두정부에의한 연방제 통일만이 유일한 한반도의 통일방법』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김일성이 이어『연방제 통일만이 남-북한 양측이 서로를 삼키지 않고 통일할수있다』고 거듭 강조했으며『오는 22일에서 4일간 평양에서 남북한 총리회담이 열릴것』이라고발표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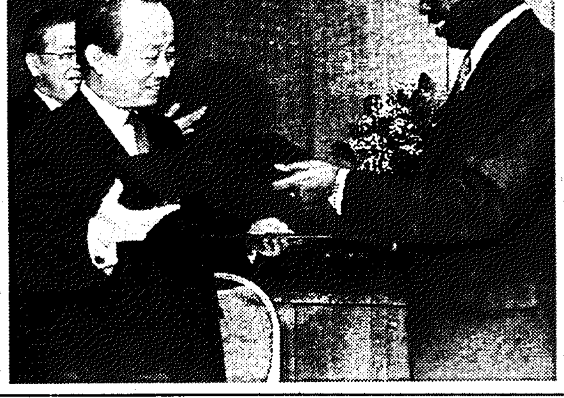
江澤民총서기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을 지지한다』고 간단히 대답하고 『남북한총리회담이 성공적이기를 희망하며、북한의 유엔가입을 축하한다』고 짧게 덧붙였다。

江총서기는 이어 『한반도의 통일은 대화와 타협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뒤『중국은 한반도사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있으며、최근 몇년간의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이 조선인민들의 열망과 아시아인의 희망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김일성은 국내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안정과 단결을 즐기고 있으며、올해 농사도 풍작』이라고 말했으며、이에 대해 江총서기는 『중국은 미래에 자신을 갖고있으며、지금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있고 평화와 발전은 시대의 대세가 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江총서기는 이어 『세계는 진보하고 사회는 발전하며 인민은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없는 역사의 대세』라고 힘주어 말해 김일성에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27번의 비밀방문을포함、모두 39번째로중국을방문한 김일성은 5일에는 李鵬총리와 회담할예정이며、6일에는 楊尙昆 국가주석과만난뒤 鄧小平과도 비밀회담을가질것으로 전해졌으며、3일간의 북경방문을 끝낸뒤 중국남부의 경제특구나 아니면 山東省、江蘇省을 돌아볼 예정으로전해졌다。



◇韓-브룬디 협정서 교환 李相玉외무장관(왼쪽)이 3일 뉴욕에서 시프리엔 므보님파 브룬디 외무장관과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양국은 대사급 외교관계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뉴욕=AFP聯合】

3府요인 초청 오찬

盧대통령

盧泰愚대통령은 4일『세계적 변혁속에 남북한 관계도 통일을 열어가는 큰 전환기를 맞고있다』고 지적、『외교문제、특히 남-북문제는 모든 국민의 중지를 모아 여-야가 초당적으로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盧대통령은 이날낮 朴浚圭국회의장 金德柱 대법원장과 民自党의 金泳三대표최고위원 金鍾泌 朴泰俊최고위원、민주당의 金大中 李基澤 공동대표를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하며 유엔및 멕시코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외교와 남-북문제에대해 여-야가 좋은 의견을 많이 내 기탄없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만들어달라』고당부했다。

拉北인사 유해奉安 허용 촉구

통일준비協 성명

통일준비국민협의회 발기준비위원회(공동의장 李哲承 尹在旭 文鳳濟)는 4일 최근보도된 拉北애국인사들의 사망경위와관련 성명을발표、『북한공산정권이 납북애국인사들에게 가한 천인공노할 만행을 민족의 양심과 인도주의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며 『정부당국은 통일준비委 대표들의 平壤방문과 납북인사들의 생사확인및 유해봉안을 위한 북한지역내의 활동이 이루어질수있도록북한측과 적극협의하라』고촉구했다。

北韓 核사찰수용 유엔회원국 의무

美국무부

【워싱턴=金昌基특파원】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전면 이행하는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국으로서의 의무일뿐만 아니라、그들이 이제 유엔 회원국이 되었으므로 유엔헌장상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미국무부가 3일 말했다。

"자동차稅 인상재고"

民自党 정부에 요청

民自党은 내무부가 내년부터 시행키로한 서울등 대도시의 자동차세 50%인상방침의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키로했다。

羅雄培정책위의장은 4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사회간접시설확충을 위한 재원확보가 시급하나 자동차 이용자들의 부담을고려치않을수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늘의 國監 <5일>

▲운영위=대통령 비서-경호실 ▲외무통일위=통일원 ▲재무위=재무부 ▲교청위=확인감사 ▲농림수산위=종합감사 ▲상공위=상공부 ▲교체위=교통부및 산하단체

対韓 공중 核우산

美、계속제공 시사

【워싱턴=聯合】美국방부의 피트 윌리엄스대변인은 3일 核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항공기들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지의 여부와 관련、구체적 언급을 피한채 지상배치 核무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인도 부인도 않는 NCND정책이 공중核무기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윌리엄스대변인은 재래식무기와 핵무기를 모두적재할수있는 2重기능의 항공기가 유럽에 계속 주둔하는 것처럼 한국이나 한국지역에도 잔류하며 그들은 여전히 핵무기를 운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지상의 핵무기가 철수하더라도 항공기에 의한 핵우산은 계속 제공됨을 시사했다。

그는 F15、F16、FNA18、F111機등이 핵무기를 운반할수있는 이른바 2重구조의 항공기로분류된다고 밝히고 그러나지상의 核무기에 대해서와마찬가지로 이들 항공기의핵무기운반 여부에 대해서도 NCND정책이 적용되며 미국은 이같은 정책을변경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盧-金대표 오늘회동

盧泰愚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金泳三民自党대표최고위원과 주례회동을 갖고 정기국회운영대책등 당면현안들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金대표는 회동에서 국정감사이후의 예산안및 각종 법안처리에 관한 당의 방침을 보고할것으로알려졌다。

오늘 崔전대통령 초청

유엔연설 결과등 설명

全전대통령 불참

盧泰愚대통령은 5일 낮 崔圭夏 전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함께 하며 자신의 유엔및 멕시코방문 결과를 설명하고、국정운영 전반에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청와대측은 지난달 20일 全斗煥전대통령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줄것을 요청했으나、全전대통령측은 지난 1일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해 왔다。

記者수첩

「괘씸죄說」

徐榮澤국세청장이 국회재무위감사에서 現代그룹 鄭周永명예회장一家의 주식거래에 대해『변칙상속및 증여혐의가 나타나 조사중』이라고 답변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이 시끌벅적하다。

재무위는 4일 재무부감사에서도 『現代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그럴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하고있다』며 「의심가는」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확대를 촉구하고 나섰고、민주당도 대변인논평을 통해 엄정조사를 주장했다。現代가 국내굴지의 재벌인데다、관계당국최고책임자가 이례적인 방법을 빌려 조사방침을 밝혔으니 관심이 증폭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번 일에「보통」이상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있는 것은 정부의 조치가 어떤정치적 배경을 깔고있는게 아니냐는 각종 추측들과도 무관치 않다 해야겠다。

실제로 徐청장답변이후 정치권주변에서는 現代와 6共 정부와의 不和說을 例示하는 각종 사례들이 봇물 터지듯 꼬리를 물고있고、鄭회장주변의 경제外的인 움직임에 대한 說往說來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鄭회장이 고속전철등 6共경제정책을 자주 비판하고、지난8월 청와대재벌총수 초청모임에 불참、「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는 주장이나、現代가 특정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대고 있다든가、나아가 鄭회장 자신이 정치적 욕심을 갖고 있는 것같다는등의 얘기등이 그것이다。

이런 숱한 소문들과 정치적 배경說등에 대해 관계당국은 물론、現代측역시 공식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진위를 가리기가 어려운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측의 태도를 보면、무언가 분명해보이지만은 않은듯한 구석이 있는것 같다는게 정치권주변의 시각이다。이문제를 제기한 재무위관계자들조차 現代의 경우와 같은 주식 변칙거래가 결코 갑작스러운 일도、비단現代만의 일도 아닌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들은 徐청장이 답변과정에서 의원들이 거론한 여러기업중 유독 現代에 대해서만 협의를 분명히 인정하고 조사방침을 밝힌데 대해서도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現代문제가 확대되자、정부는 現代이외의 몇개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나섰다。

정부가 진정 정의로운 칼을 사용하고자 한다면、차제에 재벌들의 각종변칙적인 재산상속 증여행위에 대해 그 실태를 분명히 조사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생각이다。

〈洪準浩·정치부기자〉

北韓、이동식 스커드 개발

安企部長 밝혀

徐東權안기부장은 4일 국회국방위의 안기부 감사에서 北韓이 걸프戰때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 고정발사기지가 다국적군의 손쉬운 공격목표가된 사실에 자극받아 최근 이동발사대를 자체개발、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고했다。

徐부장은 이날 北韓 및 蘇聯등 한반도 주변정세보고를 통해 『北韓은 지난7월江原道전방기지에서있은 사정거리 5백㎞의 스커드미사일 시험발사성공을 계기로 시속70㎞이상의 차량에 미사일발사장치를 탑재、기동성을 갖춘 이동발사대를 개발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동발사대는 운반차량、기중장치、발사기등 세부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徐부장은 또 『北韓은 지난86년 이 스커드 C미사일을 개발、최근 군사분계선 북방 약 50㎞ 지점에 위치한 黃北 沙里院부근의 스커드여단 기지에 36基를 작전배치중』이라며 『89년부터는 이를 中東지역에수출하는 한편、현재 사정거리 1천㎞級 미사일을 자체개발중』이라고보고했다。

徐부장은 이어 『北韓은 이밖에도 최근 「가미가제」식 자살특공용 1~2인승 소형 잠수정을 건조、50척을東-西海에 작전배치하고 저공침투용 AN2 輕비행기를 작전배치 했다』고 밝혔다。

이런 제도…과연 필요한가 <2>

성과없는 형식과 관행 과감히 手術해야

자동차 정기점검

형식적 점검·檢査… 기준 비슷 2重부담

단단한 각오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굴리기가 쉽지 않다。경제적부담과 시간낭비는 물론 번거로움과 위험을 감수할각오가 있어야 하기때문이다。

차를 구입하여 등록하기까지 일일이 명목조차 기억할수없을 정도의 갖가지 제세,공과금을물어야한다。등록후에는 일상적인 점검외에도 법이 강제하는 주기적인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귀찮을 정도로 받아야한다。

한번에 30여만원 소요

그중에서도 정기점검과 검사제도는 우리나라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그만 사업을 하는 손수운전자 朴万鎬씨(36·서울도봉구창동)는 최근 승용차를 구입한지 2년마다 받게돼 있는 정기점검과 검사를 받으면서 그 불합리성과 번거로움에 혀를 내둘렀다고 했다。

법의 규정에 따라 우선 가까운 1급정비업체에 정기점검을 의뢰했다。그리고 정기검사를 받기위해 교통안전진흥공단소속의 자동차검사소에 가면 오랜시간이 소요된다는 정비업체의 말을 듣고는 단하루라도 사업장을 비울수 없는 처지를 감안해 아예 정기검사까지 대행해줄 것을 정비업체에 부탁하고 말았다。

하루 꼬박 차를 쓰지 못하고 정기점검과 검사를 받는데 들어간 비용은 30여만원이나 됐다。깜짝 놀라는 朴씨에게 정비업체측에서 내민 명세서에는 일부 부품 정비요금을 포함한 점검료 10여만원、책임보험료 14만여원、도로교통안전협회비 7천여원、검사수수료 8천여원、검사대행료 2만여원등이 기록돼 있었다。

「先점검後검사」비합리

朴씨는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해 평소 자동차점검을 철저히 하는 편』이라면서 『그런데도,별도로 다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기점검과 검사를 강제로 받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집에서 20~30㎞ 떨어진 검사소까지 직접 차를 몰고가 검사를 받아본 金炳浩씨(33·회사원·서울관악구 [illegible]

「출장검사장」 늘려야

[illegible]

美선 주유소서 체크

[illegible]

週刊朝鮮
1991.10.13/제1172호/값 1,300원

정기구독 안내 •서울 735-2144~5 •부산 463-5845~7 •대구 423-9484 •광주 222-3966 •춘천 55-9796 •강릉 41-1117 •청주 65-1008 •대전 254-7009 •전주 88-8236 •제주 42-0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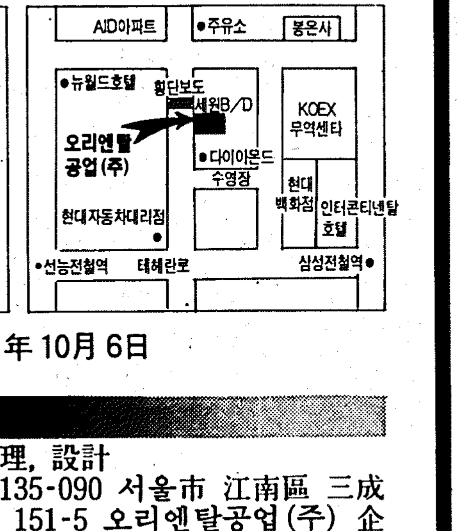
최대 발행부수, 최다 정기독자
이 時代 최고의 正論 시사주간지

黑子메이커 安千學사장의 경영방식 李仲植
하루 1억원씩 까먹던 빚투성이 회사 한국중공업을 살려낸 이야기.

財閥총수들의 대통령수행 金基天
與-野 원내사령탑 불편한 관계 沈良燮
시중은행에 여성外換딜러 탄생 辛貞録
李東勳 회장의 재벌놀이
東洋정밀 인수 6개월 만에 과욕 부리다 몰락위기 金基天

라이사 자서전 긴급入手
"고르비, 그 불같은 열정 얼음같은 理性에 반했다"

TV드라마에 접단항의 빈발 人氣프로그램 도중 下車 金昌瑛
美 CIA의 大變身 馬泰榮
超대형「보통어린이」합창단 만드는 작곡가 崔東善 金明煥



社屋移轉 및 社員募集案內

當社는 防衛産業, 高強度 PLASTC(복합재료) 專門製造業體로서 本社 事務室을 移轉하고 有能한 人材를 모시고자 합니다.

1. 事務室 移轉
○住所: 서울市 江南區 三成洞 151-5(세원B/D)
○電話番號
代表電話 564-1460
FAX 564-0328
○移轉日字: 91年 10月 6日

2. 社員募集
○募集部門: 經理, 設計
○連絡處: ㉾135-090 서울市 江南區 三成洞 151-5 오리엔탈공업(주) 企劃室 (TEL: 564-1460)

오리엔탈 工業株式會社

응암동 방3개 경일팔빌라
실입주금 3,320부터4,250까지
버스: 146, 147, 150, 143, 75, 205
응암동 신진학원 버스정류장 건너편
전화: 389-5289

53평형
최고의 자부심이 만들어낸 공간미학 논현맨숀은 새로운 주거문화를 제시합니다.
3차원의 SYSTEM 도입의 품격공간
[illegible]
분양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0-4
분양문의 548-2836, 547-4515
논현맨숀